

“ 고난의 종의 호소와 우리의 응답 ”

■ 이종윤 원로목사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시22:1,2) 이 말씀은 루터의 생애를 뒤집어 놓은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다.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루터에게 파헤쳐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였던 하나님의 얼굴이 용서와 사랑의 얼굴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루터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복음으로 불붙게 했고, 그의 전생애를 복음 위해 불살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생애를 불태웠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형집행을 묘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옮긴 것이다. 십자가 형틀은 이 시를 기록한 다윗시대엔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당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시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수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른 바 까닭 없는 고난이라 해서 주님의 은고를 밤 낮 탄원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철회하신 듯 일체 응답이 없으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거절당하는 고통 이상의 처절한 고통은 없다. 그러기에 본 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인의 비탄으로 시작된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불평이라기보다 시인의 심중에 일고 있는 신앙과 실망의 교전임을 -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짐을 대신 지시는 심한 고통을 견디면서 “내 뜻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신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고난의 종이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타인의 생명만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은 그날 정오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지시고 있는 동안’ 그를 보지 않기 위한 방패로 어둠을 내리셨다. 이 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때 갑자기 예수께서 소리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군인들이 해면을 우슬초에 매며 예수의 입에 대어 주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며” 라고 십자가로 오늘도 말을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심으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의 부활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이후,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의식할 경우 당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 죄는 내 안에서 사함 받았고 너희 고통은 지나가 버렸다” 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시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으며(3), 과거에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는 것을 알며(4-5), 시인이 받는 수욕은 곧 하나님의 수욕이며(6-8), 시인은 모태로부터 주의 것으로 봉헌된 자임을 믿으며(9-10), 시인은 주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11-21)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과히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백성의 조롱감이 된 고난의 종 그리스도는 “너를 네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시냐” 면서 침 뱀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셨다.“ 벌레 취급당하면서 다시 기도하신 고난의 종을 바라보자. 신앙이란 의지할 뿐 아니라 ‘맡기는, 헌신하는 것’ 이다. 헌신 없는 신앙은 확실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다. 마침내 고난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버리셨다. 당신이 죄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지셨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고 고난의 종된 메시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신다.

-한국장로신문 [제 1588호] 2018년 3월 3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9:21-2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Ideal Discipleship (3)"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수보노도, 보디소프, 린롬,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택시,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석순(군선교)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만나를 거두는 기쁨 ”

■ 출16:4, 14, 31

우리들이 대부분의 음식은 먹어 보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만나를 먹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아주 신비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 배고프던 시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신비한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시시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린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양념 맛이 그립고, 고기가 먹고 싶고, 비록 종살이는 했어도 마늘 먹고, 부추 먹던 때가 그립다, 고기 먹으러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만나를 거두는 기쁨, 그 처음 먹었던 신비한 꿀맛을 잊어버리고 만나를 거두는 즐거움을 상실했습니다. 감사를 상실한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다른 것을, 옛날에 먹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란 죄 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 신앙생활은 경이로움 속의 삶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하는 바 선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구하고 악을 탐닉하고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에서 터지는 샘의 놀라운 현상들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고 어느 날인가부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체험 되는 기적들은 더 이상 신기하지 않습니다. 감격과 감동은 사라지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하!” 라 하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이로움의 연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흘러버리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씨 뿌리는 농부, 잎이 피어나는 무화과, 저녁 하늘의 노을까지도 어느 것 하나 가벼이 보지 아니하시고 경이롭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를 분별하셨습니다.

3.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 먹기를 거부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영과 육은 말라서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인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지 않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매일 먹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수 없는 유혹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서 온갖 역경을 이기고 나아갈 때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를 거두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맺는 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소중히 키워 나가야 합니다. 만나를 독점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고 형제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형제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들은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오광환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1: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9(시 13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4(10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렘35:2-10, 16-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레갑족속들의 신앙”...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620.....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김명심 권사
성 경 삼상 24:1-2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윗의 마음이 찢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원, 박수강, 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 라 하였으며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출 16:3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예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2. 권사회 9월 모임 / 3부예배 후 1층(웨스트민스터홀)
3. 마리아전도회 야외모임 / 10월2일 오전 11시30분 백년옥(523-2860)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버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세례식 신청 / 10월 세례식이 10월21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10월 7일(주)
문답총정리는 10월 14일(주) 1시에 105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0월 14일(주) 오후 2시에 105호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재현(안과), 김동건(치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765명	183명	168명	1,116명	11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2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 23일	헌 금	53,522,200	
	말씀봉사비		18,010,000
"	급 여		36,354,000
	찬양대사례비		12,350,000
	교회학교사례비		9,770,000
	찬양운영비		664,0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2,000,000
	비전2020		2,000,000
	출 판 비		250,000
"	복리후생비		302,860
	교통통신비		762,310
	차량유지비		573,200
	도시인쇄비		20,000
	소모품비		76,350
	세금과공과		3,237,00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624,400
	식당운영비		1,515,430
	합 계	53,522,200	88,881,350